

독문학개론 2016SS

강의노트 1

안녕하세요? 개강으로 숨 찬 한 주를 보내고 강의노트를 짧게 적어봅니다. 학습자와 교수자가 강의의 흐름을 파악해야 좀 더 좋은 강의를 함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작성하는 강의노트입니다. 물론 건강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말입니다.

3월 3일(목) 강의내용

1. 교수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 기억하고 있는지요?
2. 강의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강의계획서를 함께 살피면서 문학이 필요한 것인가? 21세기 한국에서 왜 독일 작품을 읽어야 하는가? 라는 큰 문제를 잊지 말기를 당부했습니다.
3. 강의방향과 여러분의 기대와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월 8일(화) 강의내용

1. 설문조사 결과 및 강의 방향 설명
 - 1.1. 많은 학생들이 독일문학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알고 싶어서 본 강의를 선택했고,
 - 1.2. 독일문학(작가, 작품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독일문학을 읽고 토론하고 싶다고 합니다.
 - 1.3. 수업방식은 설문조사 전에 있었던 교수자의 설명과 여러분의 원래 바람이 합쳐져서인지 토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물론 교수자의 보충설명, 시청각자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강의는 토론 후에 교수자의 보충설명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1.4. 시험은 강의 특성상 서술형인데, 다만 리포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 및 기말고사의 방식으로 치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5. 생각나는 독일 작가와 작품에는 괴테는 여러분 모두 알지 않냐 는 교수자의 발언 때문인지 카프카, 헤세 그리고 <변신>,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등이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 1.6. 기타 건의사항 및 질문: 더 많은 작품을 다루고 싶다는 의견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 나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1)
 - 2.1. 브레인 스토밍: 나에게 문학이 무엇인가를 한 단어로 적고, 동료들과 짧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커피, 놀이터, 운전면허증 등 다양한 의견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설명으로 즐거웠습니다.
 - 2.2. <죽은 시인의 사회>의 장면(5장): 문학은 다른 학문이나 분야처럼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문학을 배울까? 문학작품은 왜 읽지? 시를 안 읽고 희곡을 보지 않아도 일상에서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어쩌면 인간이니까!?

3월 10일(목) 강의내용

1. <죽은 시인의 사회>의 장면(12장): 걸음걸이와 삶의 방식을 비유한 장면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와 '우리',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는 풀 수 없는 문제(Aporie)를 안고 있으니깐요. 인간은 자기 길을 홀로 걸으면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우리' 속에서 함께 있으면 답답해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 사이 어딘가에서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1.2. 나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2)

1.2.1. 교양에 관한 도정일의 글: ‘교양’이라는 단어는 그 기능으로 볼 때 문학으로 바꾸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학은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을 잠시 내려놓고,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다르게 바라보고 생각하도록 돕는 언어 및 문자 예술이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교수자는 여러분이 ‘나에게’ 문학이 무엇인가? 나는 문학을 필요로 하는가? 등 문학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한번쯤 던져보고 함께 논의하면서 답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시’?: 우리는 특정한 문학 및 독서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얻은 나름의 문학개념으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보이는 이 해석과정과 그 결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를 대하고 있을까? 물론 나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작품을 읽고 의견을 나누어야겠지요.

1.3. 이세돌 vs. 알파고: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1.4. 독서 그룹 편성: 학과, 성별, 학번 등을 고려해서 4인 1조로 7개의 조를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간고사 전까지 이대로 갈 것 예정입니다. 독서와 토론에 대한 나름의 방법을 조별로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1조(박찬희, 김민호, 이윤정, 황보미), 2조(소경석, 장한솔, 유수경, 최지원), 3조(장청아, 김서희, 이은정, 원종연), 4조(타미라, 김대황, 이승은, 남지원), 5조(임지환, 최혜민, 유나영, 김유진), 6조(이재환, 박해인, 유지우, 이진영), 7조(류대환, 한수민, 오솔비, 박영현) 등입니다.

3월 15일(화) 강의계획

1. <외디푸스 왕>에 대한 토론과 물음 찾기

3월 17일(목) 강의계획

1. <외디푸스 왕>과 <시학>에 대한 설명

2. 왜 <시학>이 아직도?

3월 22일(화) 강의계획

1. <현자 나탄>에 대한 토론

3월 24일(목) 강의계획

1. 레싱, <현자 나탄>, 계몽주의

유익한 강의를 위해 우리 모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강의에서 논의되는 정치, 종교, 성 등에 관한 내용은 강의에 국한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점으로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지체하지 말고 알려주기 바랍니다.
- 포탈에 여러분의 개인정보(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하기 바랍니다.
- 특별한 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메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여느 때처럼 건강과 열공을 기원하며....